

내가 본 日本

홍 순 철

<배파여고 양호교사>

1時間30分 후이면 日本에 도착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수속하기 복잡하였던 모든 일들이 징겨워 지는 느낌이 든다.

日程은 열흘 남짓, 一行은 中學校의 朴校長님 高等學校 安校長님 그리고 나, 目的은 教育視察, 招請校는 北九州의 “야하다”대학 부속고등학교, 경유지는 福岡(후쿠오카)→九州(규슈)→別府(벳부)→下關(시모노세끼) 廣島(히로시마)→東京(도쿄)→日光(넛쑤)→羽田(하네다)공항→우리나라 길로.

돌아와 몸품이 생각해 보니 너무도 가까운 거리, 비행기로 「후쿠오카」공항까지의 거리는 신촌서 정릉까지 갈만한 時間밖에 되지않는데——그곳 사람들의 얼굴빛도 모양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너무도 흡사한데——그들은 世界의 무대에서 文化園을 자처하며 인정 받고 살고 있고 우리는 허벅이며 저 끝 어디에서인가 안간힘을 쓰고 매달려 있음이 이상 스럽기만 하다.

그곳은 나무가 많다. 溫度와 습도가 나무 자라기에 적당한 때문인지? 앙상한 등뼈를 보이는 우리 나라 바위산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집들이 더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곳의 나즈막한 반 담이라던가 나무로 된 가벼운 집들의 모양은 소박한 느낌을 주는 반면, 내부장식은 예쁘고 생활하기 편하게 꾸며져 있어 外形에 치우치는 우리나라 집들과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빈집을 그대로 달아두고 다녀도 도둑맞지 않는 나라임을 알았을 때의 부러움, “히로시마”에서 東京까지 가는 기차에 선물 꾸러미를 두고내렸음을, 숙소에 도착한 후 알았을 때의 당황함,

紛失物保管所에서 찾아다 주던, 꾸러미를 안고서의 심경, 그것은 안심과 부끄러움의 엇갈림 같은 감정이였다.

世界 각처에서 모여든 관광객이 즐겁게 \$를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꾸려진 십니다 日本, 日光(넛쑤)에서 수백, 수천명의 관광객이 비오는 날 우산과 신발을 밖에두고 버선발트 마루를 지나 넓은 대청에 모여 앉아서 神을 위르하는 부체춤을 보고 나와, 제가끔 자기들의 신발을 찾아시고, 소자품을 갖고 떠나는 모습은 질서 정연하여 놀라웠다. 누구 한사람 신발이 없었다던가 바뀌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민도임을 나타 냈고,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공미를 결드린 그들의 관광지는 청결하고 우아하였다. 눈부신 황금 용마루와 기둥과 德川家の 문장 조각들도 아름다웠지만 300年 이상을 자랐다는 “스기”나무 숲의 정적과, 나무 허리 즙에 절린 구름의 신비로움은 표현할 길이 없다. 발 밑을 구르듯 부딪는 조약돌의 잘 깎임은, 태고 이야기를 하듯 했고, Kegon 폭포를 바라보기 위하여 지하 100m를 에레베이터로 내려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줄을 지나 전망대에서 쳐다 보던 장엄한 폭포의 아름다움은 산의 모든 問題를 씻어 버릴듯, 삶이 순간적 임을 말해주듯, 우뚝차게 쏟아져 구름처럼 작은 풀방울을 피어올렸고, 세상에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고와할 필요도 없이 人間은 잠시 “물”처럼 스쳐가는 존재임을 알려주듯 했다.

社會 제도는 가난한 사람 위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로 보여졌고 그들의 터전은 안정 상태임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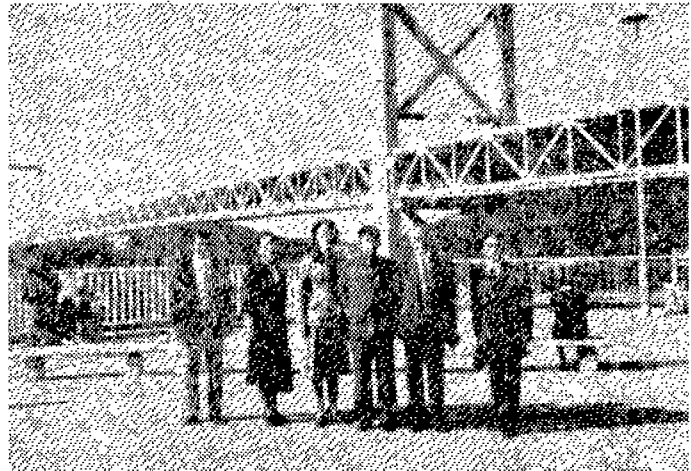
「히로시마」에 갔을때 고급 주택지로 가기 위해 언덕을 오르는 중간지점 100m 가량이 포장되지 않아 출렁이는 차속에서 이 길의 포장은 늦어질 것이라던 그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방입자가 巨富인 때문에 정부에서 힘쓰지 않는다고.

학생 등록금 문제도 형편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가에서 대치 하여주고 학교 운영에 지장 없도록 하면서 형편대로 분납하여 갈도록 보살피고 있었다.

學生들은 발랄하고 명랑해 보였고 안색도 좋아 보이는데 4年제 大學에 진학하는 女學生이 드물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青山學院 高等部 女學生 들은 여름엔 「스커트」 겨울엔 「코트」만을 지정복으로 입는다 하며 머리 모양은 이곳 女大生의 것과 같았다.

「야하다」大學 부속 고등학교에서 음악회 및 연극발표회를 관람 하면서 불을 끼얹은 듯한 조용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렇다고 난잡한 것도 아닌 관객과 연주자와의 호흡이 맞은 속에서 「나」를 부각시키려 소리치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찌로웠다. 스승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더 예절 바름을 볼 수 있었고, 청소년 문제는 世界的 추세인지 女中 2年生들이 용돈을 얻기 위하여 집단으로 性 問題를 일으키고 있음을 일간 신문에서 大書特筆하고 있었다. 성인층은 검소하고 부지런한 듯 했고 유행에 둔감한 듯한 느낌을 동경 북판을 거닐며 느꼈다. 「택시」나 「미녀」웃차림의 女人을 볼 수 없었고 「카라」 넓은 신사복이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다.

T.V에선 一般民을 위하여 教養時間을 많이 넣었고 차내에서 물건 파는 아가씨들의 상냥하고 씩씩한 판매술은 놀라웠다. 무엇이 그들을 것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는지? 의문스럽다. 국방비 없이 살기 때문일까? 아니면



關門橋에서(左로부터 두번째가 筆者)

그들의 가치관 설정이 흔들리지 않는 뿌듯한 것인 때문일까?

추측컨대 그들은 물질위주가 아닌 어떤 정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德川時代의 유산인지 아니면 明治維新의 힘인지는 日本 역사를 모르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人間은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밖에 달아 드릴 수 없는 存在임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며칠간의 日本을 본 나의 견해가 그 나라의 全部 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무엇인가 비교되는 점과 부러웠던 점을 나열하게 됐다.

가장 가까이 이웃한 나라이지만, 아무리 차관을 주고 호감 가게 행동 한다 하여도 그것을 순수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한 우리로서 그들의 성장을 그저 바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냉정히 생각하고 비판하고 연구하여 우리의 후손들은 그들을 앞질러 살 수 있는 「터전」을 지금 마련해 주고, 「균형술」의무가 우리 성인들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닐까?